

순천시, 디오리진 본사 유치! 원도심 콘텐츠 본격 추진

남문터광장 이전 확정... 웹툰·애니메이션·게임 융합 IP 기업과 협력 추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남문터광장을 콘텐츠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하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콘텐츠 IP 전문기업 ㈜디오리진(대표 정재식)과 본사이전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오리진은 순천 원도심 남문터광장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웹툰·애니메이션·게임을 아우르는 IP 제작과 지역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디오리진은 하나의 IP를 웹툰·애니메이션, 게임으로 확장하는 '멀티 유저블(Multi-Usable) 전략으로 주목받아 온 콘텐츠 기업이다. 이번 본사 이전은 순천이 웹툰·애니·게임을 모두 품는 콘텐츠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 조민수 감독(영화 설국열차·괴물 콘셉트 아티스트), 밀리언볼트 맹주공 대표 및 감독(라바' 창작자), 콘텐츠 IP전문가 박관우 대표(영화 승리호 CG 제작) 등이 함께해 순천 원도심 콘텐츠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는 ▲순천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기업 이전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인재 양성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오리진이 보유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활용해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식 대표는 "픽사가 도시 자체를 무대로 세계적 캐릭터를 만들어 낸 것처럼, 순천도 도시가 곧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성

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디오리진의 본사 이전은 순천이 문화콘텐츠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시, 하반기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시작

전 부서 현장 방문... 실질적인 소통, 조직문화 개선 박차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반기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남부권역 환경미화원 대기소에서 '함께, 청렴 답소'를 주제로 하반기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의 첫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 부서를 직접 찾아가며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만남은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렴 간담회의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달 극한호우로 다

량의 생활 쓰레기와 농자재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무더위 속에도 묵묵히 일해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하반기 청렴 간담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감사실장과 직원들이 부서를 직접 찾아가 청렴도 향상 방안 설명, 조직문화 개선 의견 청취, 종합청렴도 평가 일정 공유 등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특(TALK)담회'와 연계해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은 민·관·군·경 합동으로 지난 20일 해조류센터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실제 훈련인 시설물 폭발물 테러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훈련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국민 참여 훈련으로 이날 훈련에는 제 8539부대2대대,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완도지

완도군, 을지연습 실제 훈련 민·관·군·경 합동 실시

해조류센터에서 시설물 폭발물 테러 대비 대응 훈련 진행

점, 해양안도구조대 등 관계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해 통합 방위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 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군은 을지연습 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 방위 사태 선포

및 종합 상황실 구축, UFS 훈련 지휘소 운용 방안 등 실제 훈련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을지연습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중요한 훈련이다"면서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기 대응 역량과 기간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오일시지구와 인지지구 사전 경계 설정 협의 완료

진도군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산면 인지리, 고군면 오일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 경계 설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사무소는 진도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엘엑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일시와 인지리의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했다.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지별 측량 결과와 고정밀 드론 영상을 중첩해 기존 지적 경계와의 비교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경계 협의 진행이 가능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자원봉사센터, '온기나눔 온데이' 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 및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기나눔 온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온기나눔 온데이'는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으로, 정기적으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통 및 화재 예방 등 안전교육 ▲이미용 서비스 ▲반려동물 만들기 ▲복지서비스 상담 등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관내 간호학과, 이·미용학과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및 재능기부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복지 및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돌봄의 훈훈한 온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무안군 제공



"안전이 최우선" 능주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방문

화순군 능주면(면장 최형주)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노인일자리사업(환경정화활동) 현장 21개소를 방문하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군의 역점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 △화순파크골프장 운영과 지역 관광 명소를 새로 확대 지정한 △화순 11경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능주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37명이다.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과 더불어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휴서기(7월-8월) 동안 활동을 중단했으나, 기상 여건 완화로 이달 18일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